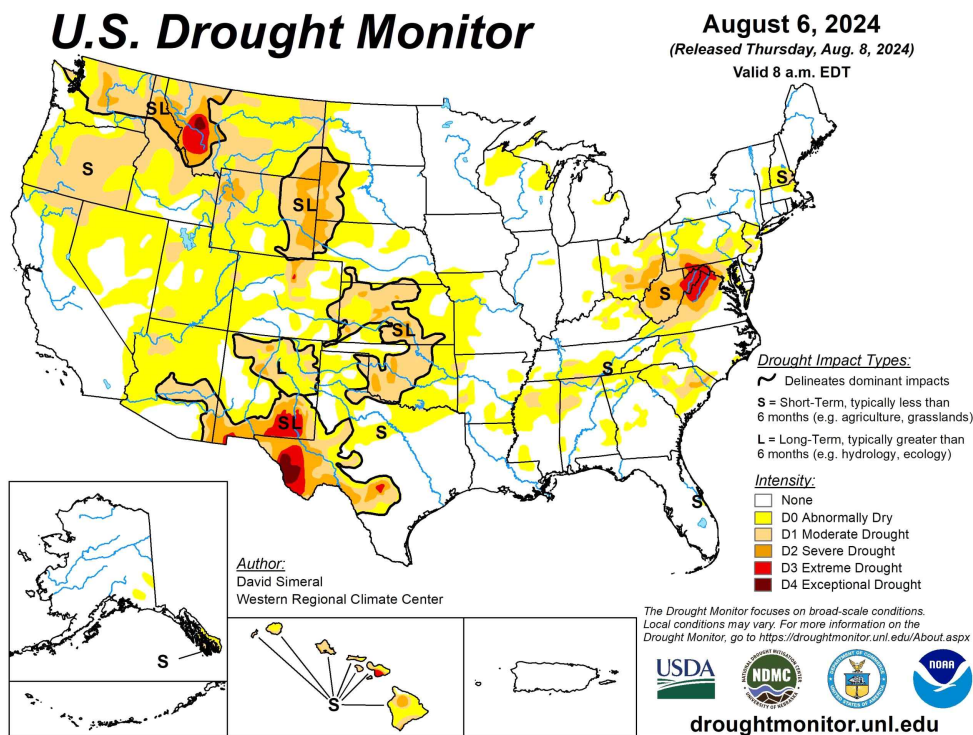


8월 1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33)

□ 미국 기후 현황(8/4-8/10)

허리케인 뎀비는 8월 5일 새벽 무렵 플로리다의 빅 밴드에 상륙했다; 플로리다 북부와 조지아 동부를 가로질러 앞바다로 이동했다; 그리고 8월 8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 북부에 (열대성 폭풍으로서) 최종 상륙했다. 그 후에 허리케인이었던 그 열대성 폭풍이 북쪽으로 더 빠르게 이동했으나 뉴욕처럼 먼 북쪽에서 여전히 돌발성 홍수를 유발하기까지 했다. 더 남쪽에서는 총 8-16 인치 또는 그 이상의 강우가 탐파 만 근처와 그리고 플로리다 북동부에서부터 캐롤라이나 동부까지 광범위한 저지대 홍수를 일으켰다. 더 서쪽에서는, 몬순 순환이 한 쌍의 한랭 전선과 상호 작용하면서, 눈에 띄는 강우는 주로 로키산맥, 평원 그리고 남서부의 일부에서만 발생하였다. 또한 평원 북부에서부터 오대호 지역까지 한 줄로 비가 내렸고 한편 미시시피 계곡 하류와 중류 및 인근 지역들에서는 해당 주간 내내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그밖에 대분지 대부분과 태평양 연안 주들을 포함하여 극서부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현재까지 올해의 전국 산불 면적은 520만 에이커(10년 평균의 약 125 퍼센트)를 넘어 섰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에서 최근과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산불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로키 산맥의 여러 곳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 F 이상 상승했다. 반면 북부 및 중앙 평원과 중서부 상부의 전역에 걸쳐서 평균값이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하락했다.



□ 농업 현황 요약(8/5-8/11)

옥수수 지대와 미시시피 계곡 하류 대부분은 평년보다 건조했고 반면에 동부 해안 대부분은, 중서부 상부, 대평원, 로키산맥 그리고 서부는 물론이고, 평년보다 최소 두 배 많은 주간 강수량을 기록했다. 플로리다의 빅 밴드 지역에 1급 허리케인으로서 상륙한 뎀비는 동부 연안을 따라 광범위한 홍수를 일으켰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부는 12인치를 초과하는 비를 기록했다. 한편, 대서양 중부 대부분, 남동부, 남서부 그리고 서부는 평년보다 따뜻했다. 대분지와 캘리포니아 일부는 평년보다 6°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반면 중서부 대부분, 중앙 및 북부 평원 그리고 로키산맥 북부는 평년보다 선선했다. 다코타의 많은 구역들은, 미네소타와 몬태나 일부와 함께, 평년보다 9°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8/4-8/10)

■ 유럽:

유럽 남서부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었고 이와 나란히 대륙의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추가로 내렸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이베리아 반도에서 동쪽으로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중부까지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 C 높았다. 스페인에서는 주말에 최고 기온이 카스티야 이 레온의 경우 (스페인 북서부) 41° C로 치솟아 유숙기 중에 있는 옥수수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었다. 스페인 중부와 남부를 가로질러 42° C의 광범위한 고온이 종실 비대 중인 옥수수와 해바라기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가했고 여름작물을 재촉하여 성숙을 앞당겼다. 이탈리아 중앙부와 남부도 더운 조건들 (최대 40° C)로 둘러싸이면서 늦게 종실 비대 중인 여름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남부에서도 주말에 더워져서 (35-39° C) 종실 비대 중인 옥수수, 대두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해바라기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삭감했다. 건조한 날씨와 함께 점점 더워지면서 계절 야외 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나 스페인 남부와 이탈리아 중부의 가장 건조한 지역들에서는 표토 수분을 더욱 감소되었다. 한편 유럽 북부와 북동부 대부분에서는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가 5-55 mm의 비를 내리면서 종실 비대 중인 여름작물에게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의 겨울작물 파종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유지했다. 북이탈리아에서도 국지적인 폭우 (5-35 mm)가 쏟아졌고 파괴적인 바람과 큰 우박에 대한 수많은 보도들이 따라왔다. 더 동쪽에 있는 헝가리와 발칸반도는, 루마니아 남동부에서는 최대 25 mm의 비가 내리면서 국지적으로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가뭄에 시달렸다. 그리스에서도 가뭄이 굳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곳에서는 계절에 맞지 않게 더운 여름 때문에 면화가 평균보다 2-3주 일찍 성숙되고 있었다.



■ 구소련(서부):

지역 전체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남부와 남동부에서는 심한 가뭄이 지속되기는 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와 평년에 가까운 기온이 우세했다. 러시아 북쪽에서는 보통 수준이거나 강한 소나기들과 뇌우들 (10-45 mm)이 종실 비대 중인 여름작물들에게 유리한 수분을 유지했고 남부에서는 가뭄을 완화했다; 그러나 남부와 북코카서스 지방에서 가뭄과 더위에 시달린 여름작물에게 그 비는 너무 늦었다. 벨로루시, 몰도바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부와 북부에서는 비슷한 소나기들이 내려서 종실 비대 중인 여름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을 유지 (북부) 또는 개선 (남부) 했다. 광범위한 소나기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남부와 남동부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종실 비대 중인 해바라기와 옥수수에 대한 수확 전망을 더욱 낮추었다. 평균 기온은, 러시아 남부에서는 주 후반에 더위 (35-38° C)가 다시 찾아왔지만, 평년 대비 1-2° C 이내였다.

■ 동아시아:

습한 날씨가 장강 계곡 상류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띠를 이루며 뻗었다. 그 띠 내에 있는 많은 지역들은, 특히 화북평원과 북동부에 있는 주요 곡물 및 유지작물 지역들은, 50 mm를 넘는 비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습기는 환영을 받았으나 그 강우가 몇몇 성들에서는 과도한 습기를 더했을 뿐이었다 (랴오닝: 7월 1일 이후 강우가 평년의 270 퍼센트; 허난: 7월 1일 이후 강우가 평년의 248 퍼센트; 둘 다 해당 기간의 기록임). 한편 더위와 건조함이 남동부를 계속 괴롭혔다. 기온이 35° C를 쉽게 넘어갔고 어떤 곳들은 40° C를 넘는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 (평년보다 6° C 높음) 6월 말 이후로 강우가 거의 없었다. 그런 해로운 조건들이 벼와 기타 계절 작물들을 계속 괴롭혔고 잠재 수확을 낮추었다.

■ 호주:

밀 지대의 서부와 북동부 일부를 가로질러 계속적으로 내린 산발적인 소나기 (5-25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는 서호주, 퀸즐랜드 남부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의 겨울 작물 전망을 양호하게 그리고 국지적으로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남호주와 빅토리아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영양기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감소시켰다. 후자의 주들에서는 겨울 작물의 상태가 적당하거나 양호하지만 작물들이 생식기로 나아가고 있어서 수확 전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곧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밀 지대 전체에 걸쳐서 계절적으로 온화한 날씨 (평균 기온이 평년의 1° C 이내)가 우세했고 최고 기온은 섭씨 10도 후반 (남동쪽)에서 20도 초반 (서쪽과 북동쪽)의 범위를 보였다.

■ 아르헨티나:

남부 및 북동부 농업 지역들에서 시기적절하게 내린 소나기들이 출현하고 있거나 영양기에 있는 겨울 곡물들에게 유익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밀과 보리의 산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팜파에 있는 인근 지점들에 내린 총 강우량은 5-50 mm 였다. 중앙 아르헨티나에 있는 다른 곳들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고 코르도바와 주변은 거의 완전히 건조했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에서는 기온이 계절적으로 온화했고 대부분의 농업 대표지들에서는 결빙이 흔했다; 더 건조한 몇몇 장소들에서는 야간 저온이 -5°C 밑으로 떨어져서 겨울 곡물들의 성장을 느리게 했다. 더 북쪽에 있는 차코에서부터 동쪽으로는, 포모사처럼 먼 북쪽에서는 결빙 (기온이 -2°C 로 낮음)이 기록되기는 했지만, 적당하거나 강한 비 (25-50 mm, 국지적으로 75 mm에 육박)가 내려서 생식기 중에 있거나 생식기에 가까이 있는 겨울곡물들을 위한 수분을 증가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차코와 산티아고델스테로에서 8월 8일 현재 밀이 개화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온도에 민감한 겨울 곡물들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브라질:

주요 남부 생산 지역들에서는 가볍거나 적당한 소나기들이 밀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총 10 mm의, 국지적으로는 50 mm 넘게 내린 강우가 히우그란지두술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파라과이 전체로 뻗어 있는 넓은 지역을 덮었고 파라나에는 그리고 마투그로수두술과 상파울루에 있는 인근 지점들에는 그보다는 더 적은 양을 기록했다. 기온은 일반적으로 밀 성장에 유리했고 (최고 기온은 섭씨 20도 중반에서 30도 중반 사이), 주요 생산 지역의 서쪽 및 남쪽 가장 자리에는 부분적으로 서리가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히우그란지두술 정부에 따르면 8월 8일 현재 밀은 다 파종되었고 1 퍼센트가 개화 중이었다. 파라나에서는 8월 5일 현재 밀의 약 75 퍼센트가 개화기에 도달했고 1 퍼센트가 수확되었다; 한편 2기작 옥수수 92 퍼센트 수확되었다. 더 북쪽에 있는 중앙부와 북동부 생산 지역들에서는 계절적인 따뜻함 (최고 기온이 국지적으로 30도 후반에 도달)과 건조함이 2기작 여름작물들의 수확을 지원했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9월 9일 현재 면화가 평균 63 퍼센트 대비 44 퍼센트 수확되었다.